

WONIK MAGAZINE

WONIKIN

Vol 47 SUMMER
— 47 2016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함 께 만 들 어 가 는 이 야 기 원 익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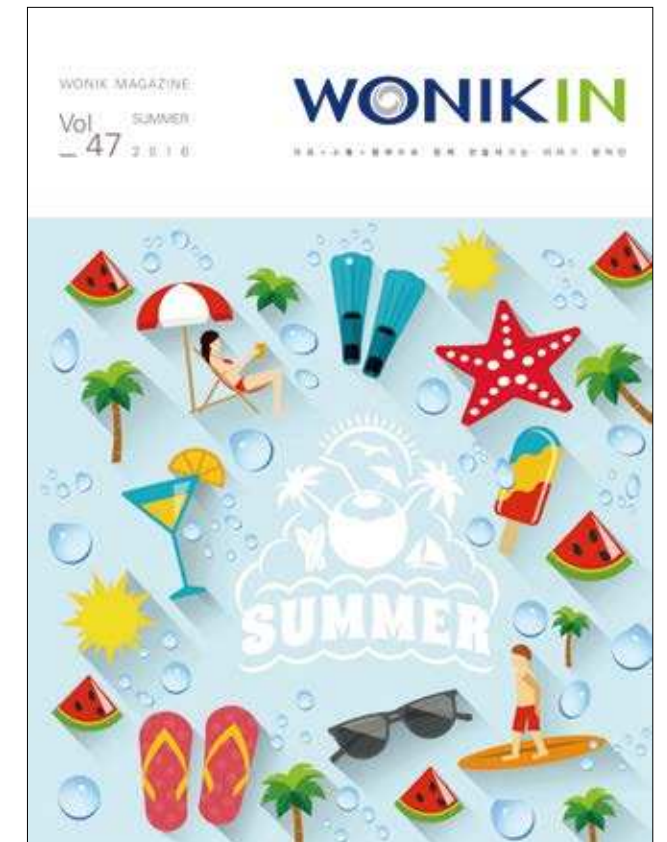


자유

원익인의 뜨겁고 자유로운 열정은
더 큰 내일의 꿈을 향해 갑니다



COVERSTORY



04 **Cover story**
소통
세계 최대 커피 체인 Starbucks

08 **Wonik News**
원익인
계열사 소식

26 **CEO Column**
(주)원익로보틱스
장경석 대표이사

CONTENTS

WONIK MAGAZINE · 2016 · SUMMER · Vol.47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함 께 만 들 어 가 는 이 야 기 원 익 인



COVER STORY

29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내일을 향한 자유



43

원익인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함께하는 소통



61

원익인의 자부심으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가슴벅찬 행복





LIFE STORY



COVER STORY	내일을 향한 자유	함께하는 소통	가슴벅찬 행복	LIFE STORY
04 Cover story 소통 세계 최대 커피 체인 Starbucks	30 Wonik Challenge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KPGA 시니어 오픈	44 Wonik Culture (주)원익머트리얼즈 Shall We Picture	62 Zoom in (주)원익큐브 임직원 단합대회	78 Festival 여름 축제
08 Wonik News 원익인 계열사 소식	36 Wonik Hero (주)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영업팀 고인성 부장	48 Wonik Dream Team (주)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개발팀	66 Wonik Training (주)원익큐엔씨 Culture Day	80 Economy 여름휴가, 똑똑한 소비
26 CEO Column (주)원익로보틱스 장경석 대표이사	40 Wonik Business 리더의 책장 (주)원익큐브 오영신 대표이사	52 Wonik Mentor (주)원익 미래사업부 BD팀	70 Special Edition (주)테라세미콘 한마음 명랑운동회	82 Trend 화학물질 주의보
		56 New Start (주)원익홀딩스 출범기념 단합대회	74 Never Ending Challenge 노르웨이 출신 정수기업 Stokke	



세계 최대 커피 체인 Starbucks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커피’ 하면 떠오르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스타벅스’는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브랜드다. 매장을 방문해 커피나 음료 등을 구입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 위에서, 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스타벅스’의 로고는 자주 눈에 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내에 900여 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며, 마트나 편의

점 등에서 소매점용 스타벅스 커피음료(병커피-프라푸치노, 캔커피-더블샷, 컵커피-디스커버리즈)를 판매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역사,
그리고 하워드 숄츠 회장

최초의 스타벅스는 음료가 아닌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

점이었다. 1971년 샌프란시스코대학 동문인 제리 볼드윈과 고든 보커, 제브 시글이 시애틀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82년 현재의 하워드 숄츠 회장과 인연이 닿았다.

하워드 숄츠 회장은 우연히 접한 스타벅스의 커피맛과 경영 방식에 반해 소매영업 팀장으로 인연을 시작했으며, 이후 그는 이탈리아 여행 중 들른 에스프레소 전문점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스타벅스가 공급하는 커피 원두로 음료를 만드는 ‘일 지오날레’라는 커피전문점을 창업한 뒤 242회에 이르는 투자 설명회 끝에 자금 유치에 성공, 1987년 스타벅스를 전격 인수했다.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스타벅스는 1994년 첫 번째 드라이브-쓰루(Drive Thru / 자동차를 탄 채로 주문할 수 있는 형태의 점포) 매장을 오픈하는 등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왔다. 현재는 미국 12,973개, 중국 1,897개, 캐나다 1,550개, 일본 1,088개, 영국 927개, 한국 893개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총 24만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성공,
직원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
근로자(Employee) 아닌 파트너(Partner)

스타벅스는 미국 경제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0’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기업 중 하나다. 스타벅스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직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워드 숄츠 회장의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을 근로자(Employee)가 아닌 파트너(Partner)로 부르며, 주당 20시간을 일하는 파트너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파트너들의 교육에도 적극 투자하는데 학업에 뜻이 있는 파트너들이 대학에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4년 간의 온라인 학위 과정 학비를 지원한다.

한국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연령과 성별, 학력을 불문하고 직원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며,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휴가, 복지포인트 지급, 의료비 및 경조사 지원, 파트





너 할인, 시음용 원두 지급 등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점장이나 부점장, 일반 직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서로에 대한 호칭을 닉네임으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 여성 퇴사자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리턴맘’ 제도와 장애인

채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 채용의 경우, 장애인 인사관리 전담 직원이 평균 주 4회 전국의 장애인 근무 매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스타벅스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매장 밖에서 음료를 사전에 주문하는 방식인 ‘사이렌 오더’로 바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과감한 혁신 프로젝트

승승장구하던 스타벅스에도 위기는 있었다. 2000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하워드 숄츠 회장은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를 되살리기 위해 2008년 다시 복귀했다. 이후 복귀 한 달 만에 바리스타는 물론 전 직원들에게 에스프레소 제조와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 매장을 하루 동안 모두 문을 닫게 했다. 당시 스타벅스의 하루 평균 매출은



원익, ‘사람’이 중심인 기업문화

스타벅스가 직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원익 역시 ‘사람’이 중심인 기업문화 ‘자유’, ‘소통’,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익은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개개인이 성장해야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방법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자기 계발 제도 등을 펼치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과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신성장 동력을 발굴, 신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는 원익의 미래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글 윤보라

사진출처 • 스타벅스 홈페이지

자료출처 • Onward – 스타벅스 CEO 하워드 숄츠의 혁신과 도전



㈜원익

2016 조직개발훈련

㈜원익이 2016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현장중심의 유기적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조직개발훈련을 진행했다.

먼저, 20일에는 영월 고씨굴 관람, 동강 래프팅 조직개발훈련 등이 진행됐다. ㈜원익 임직원들은 영월 고씨굴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로 곤드레밥을 먹은 후 숙소에 짐을 맡기고 본격적인 동강 래프팅 조직개발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동강은 맑은 날씨 속에 래프팅을 하기에 적당한 수온과 수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원익 임직원들은 집결 장소에서 부상방지를 위한 전체 안전교육 진행 후 조별로 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가 부딪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 지 막막했지만 이윽고 방향을 정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보트는 리더의 지휘하에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령에서 빠져 나왔다. 급물살에서는 서로의 몸을 단단히 고정시켜 위험을 벗어나기도 했다. 반복되는 노젓기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조원간의 격려와 응원 끝에 모든 보트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원익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위기의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서로간의 격려와 응원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훈련이었다.



저녁에는 Cosmetic팀 MC하에 각 팀별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각오, 신규입사자 소개, 감사의 스티커 붙이기, 미니게임 등으로 구성된 연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캠프파이어에서는 직원들이 촛불을 들고 각자의 마음속에 하반기 다짐을 새기는 시간으로 첫 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날인 21일 오전에는 2017 ㈜원익 배낭여행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최종 4개 팀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낭여행의 목적 및 일정을 준비하여 임직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반기 2차 경연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1개 팀에게 배낭여행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끝으로 이창진 대표이사의 신사업 공유 및 '역사에서 배우는 Biz Tip' 특강이 이어졌다.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고민해보며 1박 2일간의 조직개발훈련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DEKA,
테크니컬 트레이닝 개최

이노젝터 워크샵 in 방콕



이탈리아에서 DEKA 수석 엔지니어 방한, 일주일동안 진행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익(대표이사 이창진, www.wonik.co.kr)은 2016년 새롭게 런칭하는 피부미용레이저기기 DEKA의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DEKA는 의료용 레이저기기를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회사이다.

이번 트레이닝을 위해 DEKA는 본사 수석엔지니어인 리카르도 세네시(Mr. Riccardo Senesi)를 한국에 직접 파견해 새롭게 런칭하는 뉴 아이템인 혈관치료용 레이저 바스큐(VasQ), 색소치료용 리플레이(Replay), 흉터치료용 스마트사이드투(SmartXide2)에 대한 이론교육과 기술심화교육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원익은 이번 테크니컬 트레이닝 개최를 통해 이탈리아 명품 레이저 의료기기 DEKA 제품들의 국내유통과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범준교수의 강의와 핸즈온 진행

의료기기 전문기업 ㈜원익(대표이사 이창진, www.wonik.co.kr)은 피부재생 의료기기 이노젝터의 해외 수출을 위해 지난 6월3일 태국 방콕에 소재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노젝터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노젝터는 강력한 공기압을 이용해 회오리형태로 피부 속 진피층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흉터제거와 주름완화, 피부탄력증가 효과를 내는 장비이다. 이번 이노젝터 워크샵에는 태국 현지 의사와 스태프 및 관련 업체의 마케팅팀과 서비스팀이 참가하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의 강의와 핸즈온으로 이노젝터를 이용한 피부치료법을 공유하였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이노젝터는 다른 흉터 치료법에 비해 다운타임이 짧고 간편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두드러진 치료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노젝터가 피부 치료의 세계적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익, ‘코스닥시장 개설 20주년 기념식’서 공로상 수상

원익이 ‘코스닥시장 개설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일 ‘코스닥시장 개설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코스닥시장을 미래성장·기술형 기업의 메인보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번 ‘코스닥시장 개장 20주년 기념식’에는 정부·벤처업계·상장법인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세계 수준의 신시장으로 성장한 코스닥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스닥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미래성장산업의 등용문이자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해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최 이사장은 “창업부터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한국판 벤처 성공 경로를 마련하겠다”며 “코스닥을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미래성장산업의 등용문이자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코스닥시장 20주년 기념식’에서 원익은 공로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시장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원익은 그룹 내 코스닥 상장기업이 8개사로서, 이번 공로상 수상은 그동안 코스닥시장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상을 계기로 원익의 전임직원들은 더욱 발전하는 원익의 모습을 위해 열심히 힘을 모아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원익큐엔씨

원익나눔회, 지역 환경미화와 농촌 일손 돕기에 앞장서



기업문화 추진 TF, 우리 기업문화는 우리들로부터



원익나눔회(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가 인근 지역 환경미화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지난 5월 13일, 점심시간에 13명의 직원이 모여 포대자루와 집계를 하나씩 들고 인근 산으로 향했다. 회사 길 건너에 위치한 이 산의 초입은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청소와 제초작업 등 주변 환경미화 및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다. 점심시간까지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렸지만 동료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마쳤다. 농촌봉사활동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는 1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농촌봉사활동은 주말에 시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태어 주었다. 원익나눔회는 이러한 정기 봉사 외에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원익큐엔씨는 올 상반기부터 다양한 단위별 기업문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문화 정착의 주체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Y/G클럽이 대표적이다. Yellow club은 입사 1년 이하의 신규입사자, Green club은 대리/과장급의 중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Y클럽의 경우 신입사원 특유의 재기발랄함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며, G클럽의 경우 현실적이며 공감대가 높은 내용을 콕 집어 제안하고 있다. TF를 계층별로 구성한 이유는 구성원 간 서로의 고충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맞게 미팅 후에는 개인적으로 업무 및 퇴근 후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TF 멤버 전원이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경영지원본부 권순형 상무를 비롯한 임원진도 함께 참석해 TF에 대한 격려와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CAN미팅 형태의 협업간담회도 운영하고 있다. 직급과 나이, 부서 등에 관계없이 매월 본부별 1~2명이 외부에서 미팅을 가지고 있으며, 매회 다른 인원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참석 대상이 된다. 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체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업문화 확산과 GWP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

LEaP로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다



원익큐엔씨의 리더십

LEaP는 Leadership Excellence and Performance의 준말로 팀장 Leadership 개발 및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총 6개월 간의 LEaP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LEaP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자 리더들이 갖추고 개발해야 할 leadership 역량 체계이며, Leadership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LEaP의 과정은 리더십 개발 교육, 액션 러닝,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을 프로젝트에 실제 적용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입체적으로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원익큐엔씨의 모든 리더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변화와 혁신, 궁극적으로 미래의 성공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원익아이피에스

MOLD TFT 결성

지난 6월 말, 2월 조직개편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직변경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MOLD TFT 신설, 3D낸드플래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고객사의 공격적인 3D낸드 설비투자로 원익IPS에서도 ON Stack 공정에 쓰이는 MAHA MLT MOLD(이하 MOLD)설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 팀이 꾸려졌다. 3D낸드플래시 기존의 Planar flash와는 다르게 메모리 셀이 횡 방향으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종 방향으로 쌓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 난이도가 높아 진입 장벽이 높고, 메모리 chip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으로 3D flash 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원익 IPS의 MOLD설비는 앞으로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익IPS의 MOLD 설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UPEH, MTBP, Uniformity 등의 지수에서 경쟁사 동등 이상의 performance를 확보 해야 한다. MOLD TFT는 현재 MOLD 설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PJT 움직였던 공정/설계/SW/부품 엔지니어들을 TFT로 공식 조직화하여 개발에 더욱 집중 할 수 있게끔 하였다. 원제형 부사장(반도체1사업본부장)이 MOLD TFT 총괄장(겸직)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총 24명으로 결성되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MOLD TFT가 MP PLUS TFT를 이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길 기원해 본다.

화성사무실 확장 이전



(주)원익머트리얼즈

‘작은 절약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반도체1사업본부 고객지원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사무실이 확장 이전하였다. 새 사무실은 기존 사무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쾌적한 환경으로 꾸려졌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상기시키고 열정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확충하였다. 직원들은 우선 넓어진 사무실에 대해 큰 만족을 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CS부서의 사무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지난 2월 DS사업본부 고객지원팀 사무실 확장 이전에 이어 반도체1사업본부 고객지원팀 또한 이전 하게 된 것이다. 인사팀에서는 본사 외 SITE 사무실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리시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할 계획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절전형 설비 전환 및 설비 효율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6월부터는 지속적인 전기 절약 실천과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은 ‘사내 전기절약 10대 실천사항’을 지정하고 ‘내가 뽑은 전기코드 우리회사 행복충전’ 슬로건을 부채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피크타임 적정 온도 유지(26℃) 와 소등 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절약도 우미로 활동하는 캠페인을 계속 펼쳐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2016년 강소기업 선정



소통 기업문화 프로젝트 ‘셀위픽쳐’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 으로 선정되어 인증서 수여 및 각종 혜택을 지원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시작한 강소기업 선정을 올 해부터 청년들이 실질적 근무환경에 초점을 두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명칭 또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으로 변경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등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4만6천여곳중 산용도, 임금체불, 고용안전, 복리후생, 미래가치 등 을 기준으로 지역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지원, 병역특례사업 우대, 근로감독 면제, 재정, 금융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화된 기준에 의하여 충북도내 단 4社만이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기업문화로 조직간 협력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문화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소통의 기업문화 혁신 프로젝트인 셀위픽쳐로 오창, 전의, 판교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각 부서가 사진을 찍고 전시회, 투표까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다.

제조관리팀 송인욱 사원(공채 2기)은 팀별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회사가 한층 더 밝은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회사를 벗어나 외부에서 팀원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서로 존중과 이해가 쌓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삼성전자 EHS Best Partner 선정

Pro-3M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2월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에서 주관한 EHS Best Partner에 선정되었다.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환경안전 전문인력과 함께 5대 개선테마를 선정, 잠재위험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3정+5S, Pro-3M 활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인프라 개선 및 안전 의식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약 4개월간의 개선 활동을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로부터 “참여한 협력회사 중 원익머트리얼즈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호평을 들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익머트리얼즈의 환경안전을 기대해 본다.

(주)원익큐브

전사 단합행사 ‘야생 1박 2일!’



매년 진행되는 전사행사. 이번에도 어김없이 5월 여름을 맞이하여 본사, 영남지사, IT지사, 여주물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행사는 양평에 위치한 한 캠프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 명은 ‘야생 1박 2일’. 전사 직원들이 한 곳에서 숙박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였기에 더욱 특별한 행사였다. 메인 프로그램은 바로 ‘통나무 집짓기’였다. 약 10명이 1조를 구성하여 총 8조가 각각 통나무로 집을 지었다. 생각보다 무거운 통나무들을 들어서 집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팀 별로 나름 전략을 짜고, 호흡을 맞춰가며 집을 점점 완성시켜갔다. 땀방울이 났지만 땀을 흘리며 완성시킨 집은 바로 우리들이 오늘 밤 잠을 잘 곳이였기에 직원들은 더 열심히 했으며, 결과 튼튼한 통나무집을 완성시켰다. 그 뿌듯함은 어디에도 빗대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그 외 ‘팀력훈련 보물찾기’ 등 여러가지 단합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가까워졌다. 다음날 아침엔 팀 별로 재료를 직접찾아 아침밥을 만들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사가 다 모인만큼 특별한 행사였으며, 1박 2일로 진행되어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았기에 서로를 더 알아갈 수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귀가하는 발걸음에 아쉬움이 담겼지만 우리는 내년을 기약했다.

㈜신원종합개발

신규입사자 집체교육 및
본사직원 재무회계교육 실시

신원종합개발(주)(대표이사 이재현)은 지난 6월 2일 하루 동안 원익빌딩에서 금년 1월 이후 채용한 경력 및 신입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원익'속의 신입사원 이해하기'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오전교육은 대표이사 인사말 및 계열사 소개와 핵심가치 내재화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사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전자결재, ERP 사용안내를 통하여 신규직원들이 유대감 및 조직 이해도를 향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후교육에는 용인 마북동과 이천사동리 현장 및 견본주택을 견학하며, 회사의 발전상과 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현장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규직원과 기존 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가한 사업관리팀 이기석 과장은 "원익그룹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회사성장의 일조하는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6월7일 오전8시부터 4시간동안 원익빌딩 2층 AV룸에서 본사 및 현장직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다. 작년부터 도입한 플립러닝(역진행 수업방식)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금번 교육에서 저자 직강의 오프라인에서 생생한 강의를 직접 듣게 됨으로써 교육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향후에도 직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오프간 결합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직원 휴게실 오픈!



신원종합개발 본사 사무실에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사진)이 생겼다. 기존에는 협소한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었으나, 기존 자투리 회의실 공간을 재활용하여 효율적인 휴게실을 마련한 것이다. 이곳은 점심시간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에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커피나 다과뿐만 아니라 음악감상, 미니 도서관(열린문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휴게실 내 열린문고는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고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공유함으로서 직원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호철 경영지원부문장은 "적절한 휴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커피머신기 등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세미콘

1분기
임직원 만남의 장

㈜테라세미콘은 하반기에도 조직활성화를 위한 CA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테라세미콘은 지난 4월 11일 오전 안성공장 강당에서 1분기 임직원 만남의 장 행사를 진행 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재경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약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존의 전달위주의 조회 방식에서 탈피하여 스탠딩 클래식 파티 형식으로 가벼운 다과를 함께하며 임직원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부서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임직원 만남과 소통의 장 행사를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봄맞이
사내 탁구대회 개최

㈜테라세미콘은 지난 2016년 3월 부터 4월 까지 2016년 새봄맞이 사내 탁구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복식 및 혼합 복식 종목에 30여명의 임직원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 되었다. 결승전은 4월 11일 많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공장 탁구장에서 열린 응원속에 진행 되었으며, 남자 복식은 허관선, 구재진 사우조, 혼합 복식은 조준형, 이정민 사우조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차지 하였다. ㈜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로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CA 활동



(주)테라세미콘은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 및 부서별 다양한 조직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CA(Culture Agent)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상반기에 진행 하였다.

주요 활동 내용은 기본지키기(복장/사내예절), 열린마음(내탓이오), 소통 및 내 업무 알리기(담당 업무 메신저 표기 등),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내주변 가꾸기), 일과 삶의 균형조화(알찬휴가, 건전한 음주문화)이며, 출근길 캠페인, 사무실 홍보활동을 매월 지속적으로 진행 하였다.

(주)위닉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LEVEL UP 워크샵

당사는 지난 4월 29일 구미 금오산에 위치한 금오산 컨벤션센터에서 자회사인 맨텍과 WIN-WIN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4월 한 가족이 된 주식회사 맨텍의 식구들이 참석하여 좀 더 가까워지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보다 많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푸른 나무숲과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금오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금오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변화”를 주제로 한 외부강사의 강의로 변화의 본질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배운 후 4개조로 구성된 분임토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분임토의는 “나와 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각 조별 실천과제를 20가지로 압축하여 자신이 속한 조의 의견을 모두에게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자료는 직원들이 오가면서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 자신의 의견과 동료의 의견을 확인하고 매일 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후에는 수려한 금오산의 정기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단체 등산을 준

비하였으며, 평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 수 없었던 직원과 짝을 이루어 산을 오르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등산은 대해폭포를 도착지로 하였고, 모두가 도착 후 “위닉스”로 3행시 대결을 하는 등 토론회 시작보다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산을 내려와 간단한 석찬을 준비하여, 오늘의 피로를 풀었으며, 탄산음료 빨리 마시기, 제기차기, 팀별 노래자랑, 기업문화 돌발퀴즈 등 모두가 즐겁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맨텍 직원과 또 개인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이 성장한 만큼 회사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을 하게 되는 토론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직원 상호간 자유로운 소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통 하나만큼은 잘하는 회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주)씨엠에스랩

K뷰티 선도 중견 기업으로 씨엠에스랩 선정

2016년 6월 29일, 한국경제에서 이진수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원익빌딩을 방문하였다. 올 한 해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K뷰티 선도 중견 기업으로 씨엠에스랩이 선정 되었기 때문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에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기자들은 씨엠에스랩의 업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한국에서 메디컬 뷰티 트렌드가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씨엠에스랩은 메디컬 뷰티 업계에서 15년이라는 독보적인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수 대표는 “코스메슈티컬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씨엠에스랩은 10여년간 메디컬 뷰티 제품들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오랜 업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병원 화장품 시장에서의 신뢰는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기자들은 또한 씨엠에스랩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까다로운 유럽 시장의 기준을 통과하여 수출을 하는 브랜드라는 점을 높게 사며, 향후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이진수 대표는 “현재 전세계 4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러시아 및 동유럽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탄탄히 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하고 카타르, 중동, 중국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 버금가는 잠재 시장인 브라질 및 남미 대륙 시장에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가 ‘글로벌 No.1 메디컬 뷰티 프론티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씨엠에스랩 중국 법인의 설립과 면세점 진출에 대해서 이진수 대표는 “면세점 진출과 중국 법인 설립 둘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언급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셀류전씨 브랜드의 위상이 중국시장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기에 머지않은 시기에 일정규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동시에 중국에서도 브랜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K뷰티 열풍과 그에 대한 씨엠에스랩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이진수 대표는 “한국은 제 2의 K뷰티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 2의 붐은 메디컬 뷰티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 황사, 자외선 등으로 인한 피부고민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분야가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피부 전문 자문단과 함께 손상된 피부를 위한 제품 개발에 몰두를 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체 처방을 위해 ‘씨엠에스랩 화장품연구소’도 설립하였다.”고 답했다. 씨엠에스랩이 글로벌 NO.1 메디컬 뷰티 프론티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6 CMSLAB 배낭여행



2016년 4월, 씨엠에스랩의 박지현 사원과 유은영 사원이 2주간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배낭여행 주제는 ‘첫사랑’이었다. 이들은 첫사랑처럼 ‘설렘’, ‘도전’, ‘성장’이 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15년 5월부터 약 일 년간 배낭여행을 준비하면서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고 여행 국가의 언어도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들의 배낭여행 장소는 이탈리아의 로마와 베네치아 스페인 남부지방의 소도시들, 그리고 프랑스 파리였다. 유은영 사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베네치아에서 보트투어를 했던 순간이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보트 위에서 베네치아의 석양을 보고 와인을 마시며 베네치아 골목을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한다. 박지현 사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세비야에서 ‘페리아 데 아브릴’이라는 축제에 참가했던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는 아름다운 꽃을 꽂고 플라멩고 드레스를 입고 모여 춤을 추는 광경이 동화의 한 장면 같았고 스페인의 정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배낭여행을 통해 세가지를 느꼈다.



첫 번째 동료의 소중함을 느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함께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도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들은 여행 전에 버킷리스트를 적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경험과 도전을 했다. 열심히 이탈리아어를 공부하여 이탈리아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전혀 타지 못했던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투어도 하였다. 이런 도전을 통해 이들은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여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감사함을 느꼈다. 첫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고 일상에 돌아와서도 회사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은영 사원은 “준비할 때는 여행을 간다는 설렘이 큰 활력소가 되었고, 여행 중에는 매일 아침이 두근거렸고, 돌아온 후에는 추억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고 박지현 사원은 “준비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다. 매일 했던 작은 일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 냈다. 여행의 순간들도 정말 좋았지만 일상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셀퓨전씨 레이저 썬스크린 100[SPF50+/PA++++], ‘화해’ 상반기 랭킹 1위



씨엠에스랩의 셀퓨전씨 레이저 썬스크린 100[SPF50+/PA++++]이 모바일 화장품 앱 1위 ‘화해’에서 상반기 랭킹 1위에 오르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화해: 화장품을 해석하다’는 손쉽게 화장품 성분을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전도 체크와 기능성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EWG(미국의 환경 연구단체) 등급 확인도 가능한 모바일 앱으로, 현재까지 220만의 다운로드 수, 월 평균 60만 명이 사용하는 No.1 모바일 화장품 검색 서비스다.

셀퓨전씨 레이저 썬스크린 100[SPF50+/PA++++]는 ‘2016 상반기 화해 뷰티 어워드’에서 선크림/로션 부문 1위에 오르며 상반기 가장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은 화장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2016 상반기 화해 뷰티 어워드’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총 59,6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447,039개의 리뷰를 활용하면서 총 4단계에 걸쳐 광고성 리뷰의 랭킹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 소비자들이 직접 남긴 양질의 리뷰를 활용해 선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셀퓨전씨의 인기 아이템인 레이저 썬스크린100[SPF50+/PA++++]는 높은 자외선 차단지수로 장시간동안 자극없이 피부를 보호해준다. UVA와 UVB 산란 효과가 있는 징크옥사이드 및 천연 콜라겐, 보톡스 유사성분, 펩타이드 등의 성분들이 함유돼 피부 탄력을 강화시켜 주고 자외선의 반사작용을 돕는다. 이외에도 자극이 없고 안정성이 높아 각종 레이저 및 메디컬 시술 후 피부 진정을 돕는데도 효과적이다.

한편 셀퓨전씨 레이저 썬스크린 100[SPF50+/PA++++]은 상반기 1위에 이어 7월 현재까지도 선크림/로션 부문 1위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화해’에서 상반기 랭킹 1위에 오른 뜨거운 호응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원익투자파트너스

트렌드에서 찾는
비즈니스 기회



지난 6월 23일 라이프 트렌드 저자 김용섭 칼럼리스트를 초빙하여 “트렌드에서 찾는 비즈니스 기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김용섭 칼럼니스트는 가장 가망성 없는 기업으로 손꼽히던 한국민속촌이 이제는 가장 망하기 힘든 기업으로 손꼽히게 된 이유와 서핑용으로 전문가들이 주로 입는 래시가드가 젊은 세대에게 핫한 아이템이 된 이유 그리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레스토랑인 베리스트리트키친 등 딱딱한 지표와 통계 대신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을 예로 들며 임직원들에게 트렌드를 통한 새로운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임직원들에게 최신 소비/라이프/비즈니스를 트렌드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좋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소통의
호프데이



지난 4월 21일 (2016년 1차 소모임 및 호프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소모임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모임에서는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영화인 '시간이탈자'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남자가 30여 년의 간격을 두고 꿈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서로가 다른 시간대에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어느 날, 건우는 1980년대 미제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윤정이 30년 전에 살해 당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사건을 파헤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스릴 넘치는 영화를 관람하며 임직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범인을 추리해 보기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동료들과 영화에 대한 의견도 나누며 임직원 모두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새나가 아닌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임직원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소모임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원익홀딩스

식당이 새로워지다.
음식이 달라지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다.

MENU

- 월 즉석요리 day (즉석구이 삼겹살, 오리 주물럭 등)
- 화, 목 Brunch day (조식)
- 수 전골 day
- 금 Choice day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중)

하늘물빛정원

Wonik과
Greeting Man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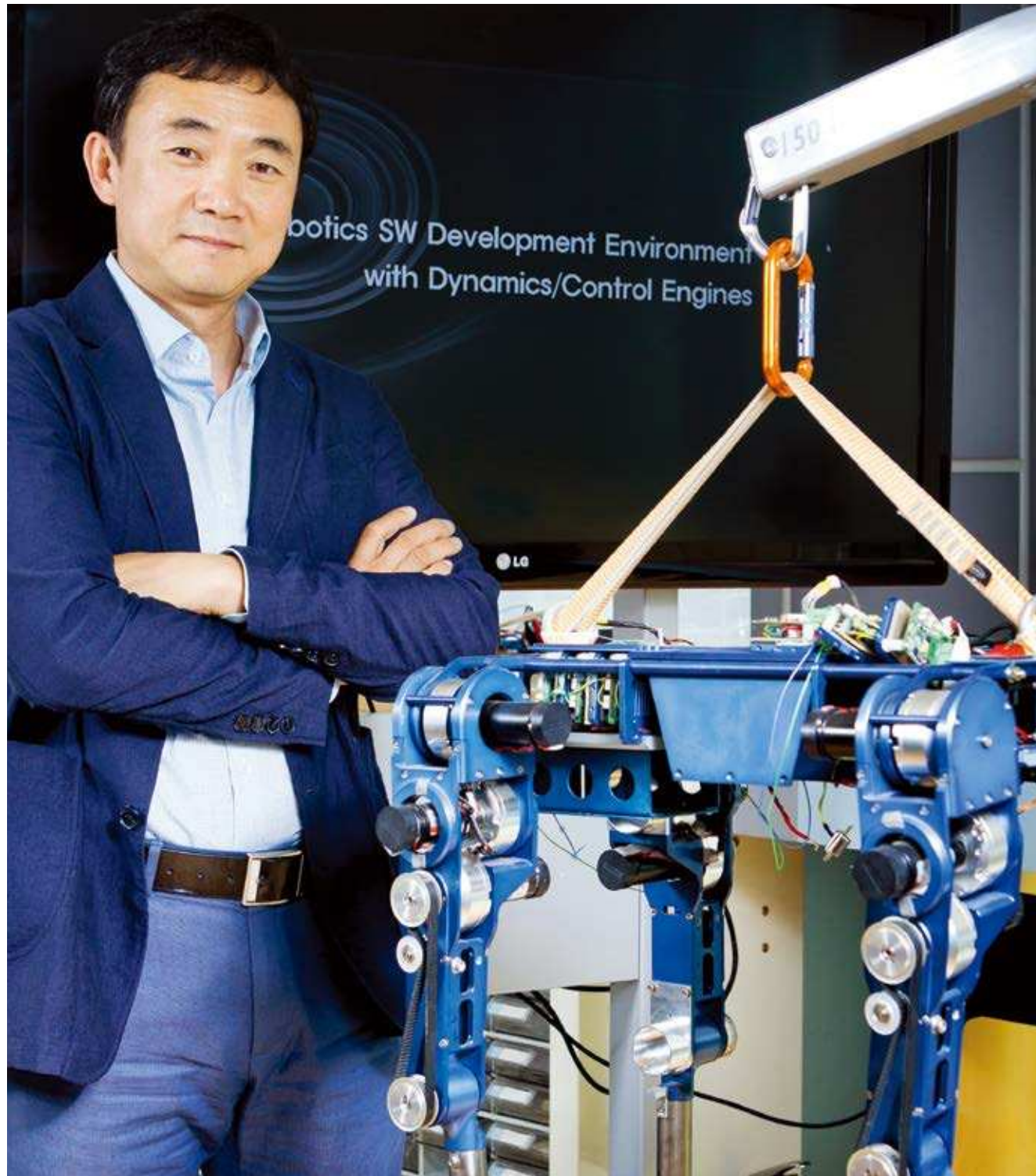


모든 관계의 시작점,
인사하는 사람 ‘그리팅맨’이 하늘물빛정원의 랜드마크로 세워지다.

하늘물빛정원에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Greeting Man, 인사하는 사람 6m)’이 세워 졌다.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Greeting Man, 인사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인간적이며 기본적인 행위인 인사(Greeting)를 통해 인간, 자연, 그리고 세상이 소통되도록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자유, 소통, 행복을 기업가치로 두고,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원익인의 마음과도 같다. 하늘물빛정원은 시그니처(Signature) 조형물로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을 선보이고 산과 아름다운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으로 에코 힐링(Eco Healing)을 지향해왔던 기존의 하늘물빛정원에서 아트와 디자인, 다양한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연과 예술이 소통하는 힐링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에코 힐링 플랫폼(Eco Healing Platform)으로 성장해 갈 계획이다.

“개인의 성장이 곧 기업의 경쟁력”

로봇 전문 기업 ‘(주)심랩’이 올해 4월 (주)원익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인수 절차를 거쳐 원익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택한 원익과 로봇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온 (주)원익로보틱스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원익의 새로운 가족, (주)원익로보틱스

‘(주)심랩’은 지난 2004년 설립 이래 실시간 동역학엔진 및 로봇 제어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시뮬레이터,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해온 로봇 전문 기업이다. 2012년에는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 벤처기업다운 도전정신과 꾸준한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해왔으며, 올해 4월 원익과 손을 잡고 (주)원익로보틱스로 새롭게 태어났다.

불모지와 같던 로봇 분야에 남다른 안목과 자신감으로 일찍이 발을 들인 (주)원익로보틱스 장경석 대표이사는 소규모 벤처기업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봇 연구개발과 컨설팅을 통한 기술 노하우 및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로봇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온 배경에는 장경석 대표이사의 믿음이 있었다. 그는 “로봇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인터넷이 범람하고 세상에 없었던 기업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사는 세상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모든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 상상속에만 존재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주)원익로보틱스는 원익의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익은 미래 산업을 준비할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찾고 있었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노하우를 지닌 원익과 같은 기업을 찾고 있었다. 이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다.”

(주)원익로보틱스 장경석 대표이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여간 원익의 일원으로 지낸 느낌에 대해 “벤처기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원익가족 안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새롭다. 원익의 근무환경은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 직원들이 더욱 힘을 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 중요

특히 장경석 대표이사는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가 (주)원익로보틱스와 잘 융합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직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왔다. 이러한 (주)원익로보틱스의 분위기는 원익의 기업 문화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익의 ‘자유’, ‘소통’, ‘행복’의 가치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문화 차이가 적응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원익의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가 (주)원익로보틱스와 잘 맞았다”며 “작은 회사가

계열사의 일원이 되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향후 5년 안에 세계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될 것

(주)원익로보틱스는 로봇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 부문의 우수한 로봇 기반 기술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급변하는 ICT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대한민국 로봇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경석 대표이사는 “하반기에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다. 공공시설에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원익로보틱스는 다가오는 로봇 시장에 대비해 인력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장경석 대표이사는 “제4차 산업혁명이 눈 앞에 다가왔다. 원익은 최적의 시기에 로봇 사업을 시작했고, 이에 (주)원익로보틱스는 기술 혁신을 통한 더 큰 성장을 위해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이 커지면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그려야 한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멋지게 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난 10여 년 간 함께한 직원들과 원익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 대한 고마움과 믿음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원익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향후 5년 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김동관



30

Wonik Challenge

원익엘앤디(주)

KPGA 챔피언스투어

메이플비치 KPGA 시니어 오픈



36

Wonik Hero

(주)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영업팀

고인성 부장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내일을 향한

자유



40

Wonik Business

리더의 책장

(주)원익큐브 오영신 대표이사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이재천)에서 지난 7월12일과 13일 이틀간 'KPGA 시니어 오픈'이 개최됐다. (주)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주)원익홀딩스 후원,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

프앤리조트 주최로 열린 이번 'KPGA 시니어 오픈'을 통해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는 동해안에 인접한 정통 링크스 코스의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리조트의 위상을 높였다.



메이플비치_그_아름다운_정통_링크스 코스의_감동을_전하다



코스 컨셉의 골프장과 49객실 규모의 부티크 호텔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KPGA 시니어 오픈'이 열린 골프 코스는 필드 전체를 양잔디로 조성, 거대한 호수를 돌아나가는 메이플코스과 해안을 따라 변화무쌍한 라운딩을 경험할 수 있는 비치코스로 각각의 색다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KPGA 시니어 오픈'에 참가한 선수들은 아름다운 링크스 코스의 감동을 느끼며 라운딩을 즐겼다.

'KPGA 시니어 오픈' 대회 유치와 관련해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 이재천 대표이사는 먼저 '한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 KPGA 시니어 오픈 개최

이번 'KPGA 시니어 오픈'에는 시니어 136명, 그랜드 시니어 32명이 참가했다. 총 상금 1억3천만원(시니어 부 1억원, 그랜드시니어 3천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JTBC GOLF를 통해 녹화 중계되어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의 품격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장이 되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대관령 정상이 보이는 천혜의 입지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힐링을 선사하는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는 전체 18홀 규모의 링크스



함께
힐링하는
즐거움을
창조하는것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효과도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회 유치가 이루어졌다. 이재천 대표이사는 “오픈 6년 차 운영을 해오면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번 'KPGA 시니어 오픈'을 통해 동해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다는 것이 선수들과 JTBC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이 알려질 것”이라며 “특히 시니어 프로들의 경우 제자 및 골프연습장 등 골퍼들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한 만큼, 프로 골퍼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해 메이플비치 골프장과 리조트의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의 코스 컨디션, 선수들도 대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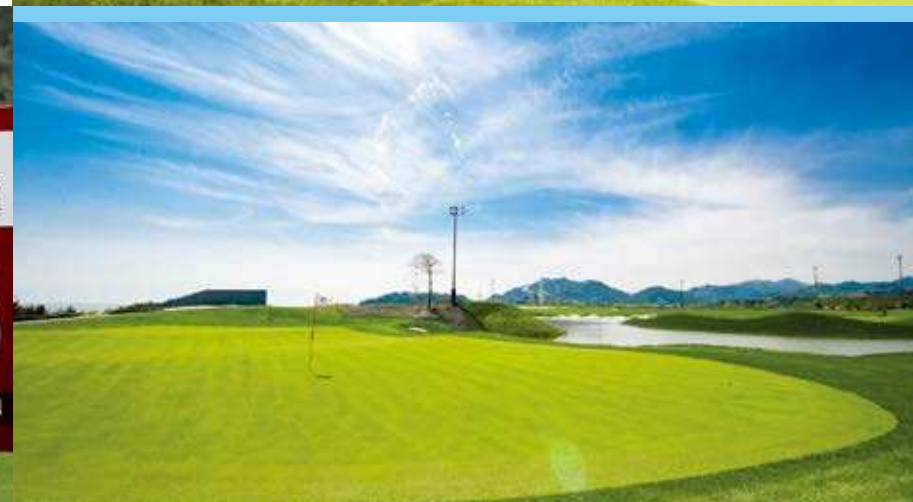
국 골프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미를 두었다. 이재천 대표이사는 “국내 남자 골프투어에 대한 관심이 여성투어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중에서도 시니어 대회는 더더욱 여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남자 골프 시니어 대회 유치를 나서서 한다는 것은 남자 골프의 부흥과 더불어 한국 골프 발전, 더 나아가 원익이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회 유치는 체육 관광을 통한 강릉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JTBC GOLF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되는 만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의 폭넓은 인지도

이번 KPGA 챔피언스투어 '메이플비치 KPGA 시니어 오픈'에서는 김정(56, 볼빅) 선수가 우승했다. 대회 첫 날 김정 선수는 버디 6개, 보기 3개 3언더파 69타를 기



록했으며, 최종라운드에서는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5개 7타를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 그랜드시니어부에서는 최상호(61, 타이틀리스트) 선수가 첫 날 7언더파 65타 기록, 최종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로 우승컵을 손에 넣었다.

한편 'KPGA 시니어 오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 전임직원들은 그간 심혈을 기울여 대회를 준비해왔다. 이에 대해 김인수 상무는 “KPGA 프로들의 각축장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스 컨디션이 중요하다”며 “티잉그라운





드와 페어웨이는 카펫과 같은 밀도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고, 그린도 명확한 라이와 빠른 스피드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상의 코스 컨디션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 직원들의 노력에 'KPGA 시니어 오픈'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 그랜드시니어부 우승자 최상호 선수는 "무더위에 경기가 힘들지는 않을까 걱

정을 했는데, 메이플비치 골프 코스는 시원하고 레이아웃도 좋았다. 이들 동안 최상의 코스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컨디션을 100% 발휘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머쥔 시니어부 우승자 김정 선수 역시 "좋은 코스와 원활한 경기운영에 힘써주신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들 동안 열린 'KPGA 시니어 오픈'을 개최한 원익엘



앤디(주) 골프앤리조트 이재천 대표이사는 13일 열린 시상식에서 (사)한국프로골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HealTainment Creator"

'KPGA 시니어 오픈' 대회 유치는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의 'HealTainment Creator'라는 비

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재천 대표이사는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는 힐링하는 즐거움을 창조하고 세상과 공유하는 'HealTainment Creator'를 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는 메이플비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 치유, 즐거움을 선물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대회를 통해 프로골퍼들에게 골프장의 품격과 퀄리티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품질과 서비스를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우리의 비전인 'HealTainment Creator'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는 'HealTainment Creator'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KPGA 시니어 오픈'에 이어 원익엘앤디(주)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는 W. ANGLE 주최로 열리는 'W. ANGLE EXTREME GOLF CHALLENGE' 유치에 성공, 오는 9월1일~3일 개최할 예정으로, 다시 한 번 동해안의 아름다운 링크스 코스 '메이플비치 골프앤리조트'의 품격과 그 감동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글 윤보라 • 사진 이재영



원익인상 수상은 나 보다 동료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상



(주)원익홀딩스의 국내외 영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TGS사업본부 기술영업팀 고인성 부장은 2015년도 원익인상 영업마케팅 부문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매출 신장 및 꾸준한 영업이윤 창출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동료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속적인 매출 신장, 꾸준한 영업이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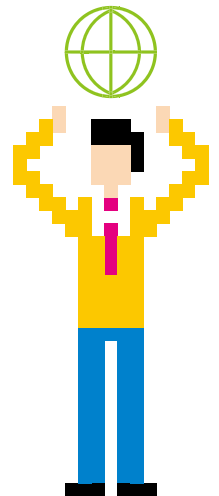
(주)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영업팀 고인성 부장은
▲2015년 TGS사업본부 최대 매출-최대 영업이익 실현
▲신제품 런칭 및 점유율 확대(매출 연계: 100억원) ▲
신규시장 진입 및 매출 ▲주요 고객사 M/S 확대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원익인상 ‘영업마케팅’ 부문상을 수상
했다.

2015년 TGS사업본부는 매출 1,002억(전년대비 신장
률 11%), 영업이익 181억, 사업계획 900억 대비 102억
을 초과 달성했으며, 신제품 런칭 및 점유율 확대 성과
는 약 100억원의 매출 연계로 이어졌다. 또한 SK하이닉
스 M14-PJT(103억원) 15년 만에 재진입 성공, 주요 고
객사인 삼성(50%)과 SK하이닉스(20%), SDC(100%) 등
의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직원들 간의 신뢰가 좋은 결과 만들어낸다

이 같은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주)원익
홀딩스 기술영업팀 고인성 부장은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기술이고 작은 시장이다
보니,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을 확대,
이윤을 창출 한다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은 일”이라고 그
간의 어려웠던 과정을 설명하며 “기술영업팀 직원들
간의 신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다. 그렇기에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결국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고 강조했다. 이에 고인성 부장은 (주)원익홀딩스 기술



꾸준한
영업이윤 창출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



영업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업무



직원들이
신바람나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영업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성 부장의 설명처럼 (주)원익홀딩스 기술영업팀 직원들은 '신바람' 나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약속을 정해놓고 이행하고 있다. ▲연차 100% 소진하기 ▲불필요한 저녁 회식과 술자리로 개인 시간 빼지 않기 ▲취미활동을 같이 하거나 적극 독려하기 ▲퇴근 시간 인사 안하고 퇴근하기 등이다.

그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휴식도 필요한 것 아닌가. 연차는 물론 퇴근도 눈치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회식의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영화를 보거나 또는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 원하는 사람만 참석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고인성 부장이

팀을 이끌면서 초기 1년 정도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함께 고생했고, 그 결과로 이 같은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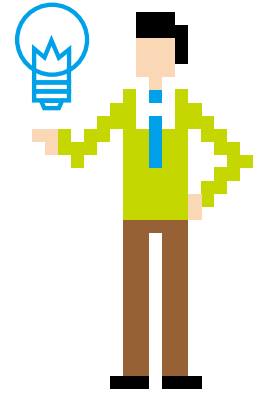
그는 “정리된 프로세스 안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니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어지고, 업무에 관해서는 공유하는 틀을 통해 진행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는 얘기를 나누는 등 분위기가 좋아졌다. 부서 내 갈등 제로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환경이 좋아지니 그에 따라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
더 좋은 성과로 갚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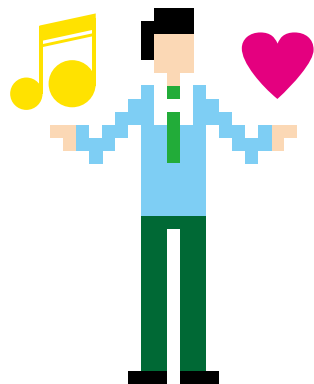
고인성 부장은 올 초 원익인상 ‘영업마케팅’ 부문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모두 직원들과 나눴다. 그는 “아내에게 상금은 모두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남편이 회사에서 상금을 타왔으니 어느 정도 기대도 했겠지만, 나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니 세금을 제하고 모두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회식을 하는 데 썼다”고 밝혔다. 이어 “원익인상 수상은 사실 동료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상인데, 대표로 수상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함께 고생한 만큼 상금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인원으로 1,000억원의 매출과 영업 이익 20%는 기적과 다름없다. 그만큼 직원들이 함께 고생한 결과”라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을 위해 팀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연말 인센티브와 아니겠나.(웃음)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또 1,000억 매출에 도전해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된다





이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의 패러다임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융합을 통한 창조적 변화가 필요한 산업과 기업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뿐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고정된 프레임을 허물고 그 경계보다 더 큰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대해 생각 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 주변환경의 기술발전 속도보다 한발 앞선 창의적인 사고와 주도적인 원인으로로서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 책을 추천 드립니다.

(주)원익큐브 오영신 대표이사

경계의 종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 기존의 경계선은 잊고 경쟁자의 범위를 확대하라!

산업 간의 경계가 와해되는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딜로이트의 대담한 제안, [경계의 종말]. 딜로이트는 1845년 영국에서 창립한 이래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현장에서 경영 및 회계 분야의 세계 최대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 책은 딜로이트의 각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들이 산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변화들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과 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다본 향후 5년의 전망을 주요 산업별로 소개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컨설팅의 각 산업별 리더들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간의 경계가 와해되는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딜로이트의 대담한 제안

총 11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1부 산업 전반을 시작으로 제조업, 금융, 보험, 유통업, 소비재, 인지 기술, 운송업, 에너지, 의료, 11부 공공분야로 살펴본다. 기업이 변화에 적응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21세기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인 글로벌·스마트·디지털·융합의 관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딜로이트가 이 책에서 제시한 전략적 방법은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단서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앞으로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내용출처 • 교보문고 홈페이지

딜로이트가 내다 본 2020 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이책은 디지털과 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다본 향후 5년의 전망을 주요 산업별로 소개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컨설팅의 각 산업별 리더들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협을 파악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산업 분석과정에서 동종기업만 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혀 관계없던 산업이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위협 요소가 생겨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 넓은 분야의 산업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설명한 이 책을 읽고 나면 각 산업에 나타나는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이 앞으로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급속도로 발전한 디지털 기술로 주요 산업분야 간에 경계가 와해되는 것은 이제 필연이다. 이러한 경계의 종말은 기존의 안정된 산업환경을 뒤흔드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핵심 역량이기도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일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다. 기업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경쟁자와 시장접근법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문화를 도입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느린 업무 프로세스, 잘못된 의사결정, 보수적인 기업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 기업이 변화에 적응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21세기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인 글로벌·스마트·디지털·융합의 관점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딜로이트가 이 책에서 제시한 전략적 방법은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단서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내용출처 • YES24 홈페이지

원익인으로서 현시대의 다양한 패러다임속에 경쟁하는 우리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과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도전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전략, 운영, 인사조직, IT 기술, 마케팅 등 급속도로 변모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또한 원익인 모두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44 Wonik Culture

(주)원익머트리얼즈

Shall We Picture



48 Wonik Dream Team

(주)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개발팀



52 Wonik Mentor

(주)원익

미래사업부 BD팀



56 New Start

(주)원익홀딩스

출범기념 단합대회

원 익 인 의 진 실 한
마 음 으 로 함 께 나 눔 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함 께 하 는
소 통

추억은 담고 감동은 나누고 Shall We Picture



(주)원익머트리얼즈가 '기업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hall We Picture'를 진행했다. 'Shall We Picture' 프로젝트는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전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회를 열어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3월과 4월, 두 달여간 사진을 촬영했으며 지난 5월31일부터 사흘간 오창 본사 및 세종2공장, 판교까지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열린 전시회를 통해 직원들의 하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원익머트리얼즈 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동료와의 소통
그 순간, 그 찰나를
가슴 마다에 담는다.



“우리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요!”

이번 'Shall We Picture' 프로젝트는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주)원익머트리얼즈의 '기업문화 혁신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주)원익머트리얼즈 전직원들은 각 부서별, 동호회, 임원진 등 그룹별로 나누어 사진을 촬영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이병섭 과장은 “이번 사진전시회는 사진 촬영의 목적도 있지만, 직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하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직장 생활이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은 매우 중요하다.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사진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원익머트리얼즈 직원들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간 사진 컨셉부터 소품, 의상 등을 팀별로 준비하고 청주 소재의 모 스튜디오에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각 부서마다 직접 직원들 간의 스케줄을 조정해 촬영할 수 있도록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사전에 스튜디오와 협의, 넉넉한 일정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





각 부서별 개성 담은 사진들

직원들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 가득

각 팀별 자유롭게 컨셉을 정해 촬영한 사진인 만큼, 이날 전시된 사진 속에는 저마다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었다. 인사총무팀의 경우 원익의 상징인 화이트와 블루 컬러로 옷을 매치해 입었고, 설비팀은 테스트 장비를, 연구소는 실험복을 입고 비이커를 소품으로 사용했다. 또 유니폼과 글러브, 배트 등의 장비를 착용한 야구 동호회 사진, 각 부서의 팀장들이 술선수범해 한 명씩 ‘기.업.문.화.우.리.힘.으.로.바.꾸.짚.습.니.다.’의 글자를 들고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특징의 사진들이 전시됐다.



특히 재무팀의 경우 사무공간을 연출하고 팀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뿌리며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등 다양한 소품과 팀 색깔을 잘 살린 사진 컨셉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재무팀 유효재 과장은 “팀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할까 회의한 끝에 나온 컨셉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진인 것 같다”면서 “팀원들의 표정도 리얼하고 재미있다는 평이 많다.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하지 않겠냐”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직원들과 사진을 촬영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아

내, 아이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다”면서 “올해 안에 꼭 가족사진을 촬영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번 사진전시회를 통해 동료들과 즐겁게 촬영하면서 가족 사진도 꼭 촬영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유효재 과장의 바람이 이루어진걸까. 이날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개성을 잘 표현한 팀을 선정해 시상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전직원들에게 ‘가족사진촬영권’을 선물하는 ‘통 큰’ 면모를 보였다.

이렇듯 이날 개최된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사진전시회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동시에 직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기업문화 혁신 프로젝트’,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기업문화 혁신 프로젝트’로 올 봄 진행한 ‘한마음 Hope Day’와 ‘봄꽃놀이’, 이번 사진전시회 외에도 ‘응답하라 2006’이라는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응답하라 2006’은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출범한 2006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구성된 조별 여행 프로젝트다. 업무와 관계없이 조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만나지 못했던 다른 부서 직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점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가 보



다 더 활발한 소통과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응답하라 2006’ 프로젝트로 전주 여행을 다녀온 개발1팀 김태형 선임연구원은 “여행의 컨셉과 장소, 숙박 등 모든 것을 직접 정해야 했기에 여행을 가기 전부터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서 “평소 교류가 없었거나 또는 교류가 있어도 업무상 이견이 있어 일부 친해지기 힘들었던 관계의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나누고 오해도 푸는 등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번 여행이 앞으로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장소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는 취지로 전주 여행을 선택했는데, 한옥마을 구경은 물론, 단제로 한복 및 오래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등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개발1팀 박새미 선임연구원 역시 “입사한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다른 팀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즐겁고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며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성장할수록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데,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회사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올 하반기에도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응답하라 2006’, ‘Movie Day’ 등 다양한 ‘기업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팀원 모두가 리더가 될 때 더 큰 성장 이룰 수 있다

㈜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개발팀은 모든 직원이 '리더'다. 각자 리더가 되어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팀원들은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 외에는 서포터로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들은 팀원 모두가 리더가 되어 움직일 때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율속에 책임을 다하는 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개발팀은 기존 생산제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성훈 상무를 비롯해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술개발팀은 신제품 개발과 기술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발1파트와 신규 파트를 개발하거나 발굴하여 그 파트에 대한 성능 검증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발2파트, 총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팀 직원들은 각자 한 가지 이상의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리더로 활동하고, 다른 팀원들은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 외에는 서포터로 활동하기에 모두가 리더이자 곧 서포터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활발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개발팀 김성훈 상무는 “개발팀의 업무는 정해진 틀과 형식에 얽매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팀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정확히 주어지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팀원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상무의 설명처럼 팀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활

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른 팀과 비교되는 기술개발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먼저, 개발2파트 김주희 대리는 “각자의 의견을 눈치보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팀장님, 파트장님께서 분위기를 잘 유도해주신다.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 속 자유로운 소통은 업무 능률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 “또 회사 내에서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자신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1파트 이현준 과장 역시 “기술개발팀은 회사 내 핵심기술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이다. 일을 진행하면서 의견차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신한 의견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2파트 이영수 과장도 “기술개발팀의 특성상

틀에 박힌 생각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러한 팀 분위기는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소통, 그 자유로움이 개인의 성장 이끌어내

이러한 회사 내 분위기는 팀원 개개인의 성장에도 큰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개발1파트 강한묵 사원은 “업무를 하다보

면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공서적이나 논문을 찾아 보거나 선배님들께 편하게 다가가 여쭙보고 답을 구한다. 경 직된 분위기였다면 바쁘신 선배님들께 다가가 질문 한 번 하 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 낌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1파트 백순옥 대리는 “김성훈 상무님을 중심 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보다 넓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팀 내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함께 공유하고 항 상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돕는 모습이 우리 팀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개발1파트 허진 대리도 “항상 소통하면서 이슈 사 항들을 공유한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공유해 함께 해결해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발2파트 김정태 사원은 워크샵이나 회식 등의



활동을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 도 있었다고, 그는 “개인적인 믿음과 종교의 이유로 술을 전 혀 마시지 못해 회식 자리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었다. 어느 날 선배님 한 분이 ‘술은 마시지 않아도 모두 함께하는 자리 이니 어색해하지 말고 웃으며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 용히 문자를 넣어주셨는데 정말 아차 싶었다”며 “관계에 대 한 이해가 부족했던 나 자신을 깨달았다. 그 이후 워크샵이 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함께 어울리면서 선 배님들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사람 사이의 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주)원익홀딩스 TGS사업본부 기술개발팀은 올해 대유량 Purifier 런칭, 개발 신제품 해외시장 매출 확대를 위한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원익IPS에서 (주) 원익홀딩스로 독립한 첫 해인 만큼,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 을 계획이다.

함께 도전하여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매출 확대 주력

김성훈 상무는 “기존의 Purifier는 고객사가 필요한 유량에 맞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었으나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서도 Gas 공급업체가 일괄적으로 발주를 받아 공급하는 방 식으로 전환되면서 10KN 이상의 대유량 공급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개발팀에서는 대유량 Purifier를 개발 런칭할 계 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성훈 상무는 “현재 OLED는 국내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 는 만큼 국산화에 성공한 개발 제품을 중국 및 해외시장에 진출,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스공 급장치, Purifier 분야와 더불어 앞으로는 신규 분야에도 진 출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경험을 배움과 동시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힘 !

언젠가부터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나 TV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에게 ‘케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케미’는 케미스트리 (Chemistry)의 줄임말로,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우러지고 궁합이 좋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주로 이성 간에 강하게 끌리는 감정이나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분위기, 호흡 등이 좋을 때 ‘케미가 좋다’라는 식으로 쓰인다. 원익의 멘토링 활동 역시 선배와 후배의 ‘케미’가 좋아야 보다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터. 남-남 커플의 최강 케미를 자랑하는 (주)원익 미래사업부 BD팀 유연성 과장과 백성현 사원을 만나보았다.

함께 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연성 과장



(주)원익의 새로운 미래,
함께 성장하는 멘토&멘티

(주)원익의 BD팀은 미래사업부 내 중심 부서로, Business Development 업무와 RA(허가/인증), 마케팅 그리고 Export(수출) 등 네 분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유연성 과장과 백성현 사원은 수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 Aesthetic 치료용 의료장비 ‘이노젝터’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노젝터’는 주름 및 흉터 치료에 효과적인 의료기기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장비로, 국내 시장 진출에 이어 올해부터 수출에 나섰다. 특히 30여 년 동안 수입 위주였던 (주)원익이 본격적으로 수출 업

무에 나섰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원익의 BD팀 유연성 과장은 ‘이노젝터’는 지난 2014년에 국내 런칭한 Aesthetic 치료용 의료 장비로,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해 올해부터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태국, 홍콩, 일본에 성공적으로 런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주)원익이 수입에 집중했던 만큼, 수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었기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백성현 사원과의 멘토링 활동은 서로 의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성현 사원 역시 “올해 (주)원익이 수출에 본격 나서게 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가 해온 메뉴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배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남-남 커플 최강 ‘케미’

묘하게 닮은 외모, 가족 같은 느낌

유연성 과장과 백성현 사원은 묘하게 닮았다. 첫 인상부터 ‘닮았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둘 만의 ‘케미’가 좋았기 때문일까. 유연성 과장은 “아무래도 체구 덕분인지 가족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백성현 사원의 첫 인상에 대해 “듬직하고 무게감 있는 외모의 (주)원익 이창진 대표님이 흑곰, 나는 백곰인데, 곰 한 마리가 더 들어와서 가족 같다고 농담을 했을 정도”라고 웃었다. 이어 백성현 사원은 “과장님은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과 달리 센스 있고 위트 넘치는, 의외로 부드러운 남자”라며 “수직적인 관계로 업무를 배운다기 보다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라 관계의 어려움은 없다.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연성 과장과 백성현 사원은 업무 외적으로도 둘 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각각 수원과 용인에서 출퇴근을 하는 두 사람은 카풀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유연성 과장은 “인위적인 회식 자리보다는 함께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적인 부분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집이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라 퇴근 후 술도 한 잔하고, 영화도 보는 등 거리감 없이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익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우리 손에 달렸다

(주)원익은 올 상반기 일본, 홍콩, 태국 시장에 ‘이노젝터’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각국 허가 취득 및 2017년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주요 업무로 보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각 나라의 FDA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 의료기기 허가(CFDA)와 유럽(CE) 허가 취득이 진행 중으로, 2016년 말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CE 획득 후에는 아시아, 중동, 동유럽 시장 진출은 물론, 2018년 북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유연성 과장은 “전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성현 사원의 경우 입사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책임감도 강하고 업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다”면서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적응, 및 언어 등의 문제도 뒤따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적응할거라 생각한다”고 백성현 사원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또 백성현 사원은 “과장님을 통해 많이 보고 배우고 있다. 과장님의 다재다능한 면모와 창의력을 더한 (주)원익의 인재가 되고 싶다”며 “(주)원익의 해외 수출 업무는 배움과 동시에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주)원익은 ‘이노젝터’ 외에도 해외 진출을 위한 후속 장비들을 준비하며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다. 끝으로 유연성 과장은 “현재는 ‘이노젝터’의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Aesthetic 분야 외 헬스케어 전체 산업군의 장비를 대상으로 Hidden Champion을 꾸준히 발굴하여 해외 시장에 도전하겠다”며 “(주)원익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백성현 사원



따로 또 같이... 자유·소통·행복·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원익홀딩스가 직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원익홀딩스 출범기념 단합대회-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27일 ㈜원익홀딩스 평택 지제사업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자랑, 바비큐 파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업무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열린 '㈜원익홀딩스 출범기념 단합대회-명랑운동회'에서는 탁구, 족구, 짝 피구 등 팀별 체육대회를 비롯해 장

'자유', '소통', '행복', '사랑' 등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운동회는 ㈜원익홀딩스 재무팀 이상훈 과장의 유쾌하고 재치있는 진행 솜씨와 임직원들의 열띤 응원과 참여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원익홀딩스 직원들은 '원익홀딩스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첫 경기부터 불타오른 승부욕

첫 번째 경기는 '탁구 대회'로, 자유팀vs행복팀, 소통팀vs사랑팀이 남자복식, 혼합복식, 남자단식 3경기씩 예선을 진행,



첫 경기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예선을 치르고 결승전에 올라간 팀은 소통팀과 행복팀. 이들은 불타오르는 승부욕을 드러내며 치열한 접전을 펼

친 끝에 결국 우승은 '소통팀'에게 돌아갔다.

탁구에 이어 두 번째 경기는 '족구 대회'. 예선경기부터 강스파이크를 날리며 신경전을 펼친 자유팀과 소통팀은 14:14



매치포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소통팀이 결승에 올랐다. 이어진 사랑팀과 행복팀의 예선2경기는 실력보다는 몸개그의 향연으로 지켜보는 이들을 폭소케 만들었고, 행복팀이 사랑팀을 15:5로 이기며 결승에 진출했다.





소통팀과 행복팀의 대결인 족구 결승전은 결승다운 뛰어난 경기력과 몸개그가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두 팀은 때로는 진지하고 매서운 공격을 펼치면서도, 엉덩이로 수비를 하거나 배치기 등의 몸개그를 선보이며 모두를 즐겁게 했다. 특히 이날 족구 대회의 우승을 차지한 소통팀은 강력한 공격을 펼치며 강팀의 면모를 선보였으며, 행복팀은 마지막

세트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다.

이어 이날 ‘㈜원익홀딩스 명랑운동회’의 마지막 경기는 ‘작피구’. 남자 선수 한 명(불사조)이 여자 한 명과 짝이 되어 보호하며 펼치는 작피구는 남자 선수가 상대의 공을 맞아 아웃 당하면 건너편 수비로 넘어가고, 불사조가 보호하는 여자 선수를 먼저 아웃 시키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다. 예선을 통해 결승에 진출한 팀은 자유팀과 소통팀으로, 자유팀은 최풍 사원과 최현미 사원, 소통팀은 이동훈 사원과 송민채 과장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긴장감 가득한 경기를 펼쳤다. 특히 마지막 경기답게 치진 선수들을 위해 각 팀들은 하나 되어 열

띤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결과는 소통팀의 승리. 이날 소통팀은 탁구와 족구에 이어 작피구까지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나된 오늘, 행복한 우리!

이날 기술개발팀 김성훈 상무는 “오늘 이 자리는 팀 내 소통은 물론, 부서 간 소통의 장이 된 것 같다. 열심히 즐기는 여러분들을 보니 행복하다”며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바빠질 예정이라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오늘의 단합대회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업무에 있어서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되는 (주)원익홀딩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술영업팀 국내영업파트 최보길 과장은 “올해 (주)원익홀



딩스로 분할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행사를 통해 (주)원익홀딩스가 보다 더 발전하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면서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도 전직원들이 화합해 개인으로도, 회사로도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원익홀딩스 출범기념 단합대회’는 탁구-족구-작피구 경기와 시상, 행운권 추첨에 이어 바비큐 파티 및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땀 흘리며 열심히 땀 (주)원익홀딩스 직원들은 준비된 바비큐 뷔페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바쁜 업무로 미처 다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후 장기자랑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CS파트 김호진 사원을 시작으로 기술개발팀 강한묵-김경태 사원, TGS

사업본부장 김채민 전무, 제어파트 김광민 사원, 기술영업파트 서정원 사원, 공사관리팀 최현미 사원 등이 화려한 댄스와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열정적인 무대를 꾸몄고, 사내 부부인 복정주 과장, 김주희 대리



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재무
팀 변지훈 과장 웃음소리 따라
하기 성대모사 대결과, 사회
자 이상훈 과장의 랩 실력, 숨
겨왔던 댄스본능을 맘껏 뽐낸
차민혜 사원이 직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주)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
사의 노래를 모든 직원이 함께
따라 부르며, 이날 장기자랑
시간은 전 직원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
가 된 (주)원익홀딩스의 출범기념 단합대회-명랑운동회를 마
치면서 이재현 대표이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가슴 속에 담겠다. 오늘처럼 항상 즐겁고 신나는 모습으로
업무에도 임할거라 믿는다”면서 “서로 격의없이 대하는 ‘소
통’, 운동 경기와 장기자랑 등에 임하는 박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 (주)원익홀딩스의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다함께 ‘원익홀딩스
의 미래를 위하여!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를 외치며 이
날 ‘(주)원익홀딩스 출범기념 단합대회-명랑운동회’의 마지막
을 장식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이재영



62

Zoom in

(주)원익큐브

임직원 단합대회



66

Wonik Culture

(주)원익큐엔씨

Culture Day



70

Special Edition

(주)테라세미콘

한마음 명랑운동회



74

Never Ending Challenge

노르웨이 출신 장수기업
Stokke

원 익 인 의 자 부 심 으 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함 께 만 들 어 갑 니 다

가 슴 벉 찬
행 복



“(주)원익큐브 임직원 단합대회, 1년에 한 번 모두 모이는 소중한 자리”

(주)원익큐브 임직원들이 직접 통나무 집을 짓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1박2일 간의 임직원 단합대회를 통해 ‘통나무 집 짓기’ 체험 활동에 나선 것. 함께 땀 흘리며 통나무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주)원익큐브 임직원들은 오랜만에 모든 사업부가 모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1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수련원에 (주)원익큐브 임직원들이 모였다.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주)원익큐브 임직원 단합대회’는 1년에 한 번 (주)원익큐브의 전

체 사업부가 모두 모이는 행사. 이에 따라 판교 원익빌딩에서 근무하는 (주)원익큐브는 물론, 서울 IT사업부, 영남 지사, 여주 물류센터, 진천 공장까지 모든 사업부 100여 명의 임

직원들이 함께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만큼, 이번 임직원 단합대회는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사업부 관계없이 총 8조로 구성돼 진행됐다. 먼저, 100여 명의 임직원들은 미리내수련원 내 강당에 모여 자기 소개 시간을 가지며, 자주 만나지 못하는 타 사업부 직원들의 얼굴을 익히는 등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이어 전문강사와 함께 직원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게임이 진행됐다. 모든 사업부의 직원들을 섞어 각 조를 구성, 둥글게 모여 앉았기에 초반에는 다소 어색함이 감돌기도 했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색함은 금새 사라지고 신나는 분위기 속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통나무 집 짓기 도전! 힘든 만큼 더욱 뜻 깊은 체험 활동

이번 (주)원익큐브 임직원 단합대회’의 주 프로그램은 ‘통나무 집 짓기’ 체험활동. 이에 따라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통나무 집 짓기’에 앞서 강사의 설명이 있었다. ‘통나무 집 짓기’는 담장, 지붕 등 통나무집을 짓기 위한 자재를 가지고 설계도에 따라 바닥, 대들보 세우기, 외벽과 지붕 설치하기 등의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무거운 자재를 직접 들고 세우고 해야 하는 체험 활동인 만큼, 조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원익큐브 직원들은 높이 기준을 비롯한 강사의 기술적인 설명에 집중했다.

이날 (주)원익큐브 지원팀 김종구 과장은 “매년 5월경 전체 사





업무가 모두 모이는 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소통과 친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동안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직원들의 단결력, 팀워크 향상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통나무 집 짓기’를 생각했다.
(주)원익큐브 전직원의 화합을 ‘통나무 집 짓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집을 짓는 과정이 팀원들 간의 소통, 문제해결능력, 단결력, 협동심을 기르는 것은 물론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1박2일 동안 통나무 집 짓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들 간의 대화의 장이 열려있다. 사업부를 떠나 모든 직원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통나무 집, (주)원익큐브 직원들의 열정과 닮았다!

이날 조별로 나뉘어 통나무집을 짓기 시작한 (주)원익큐브 임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21장의 담장 조각, 지붕 22조각 등 자재들을 나르고 조립하며 통나무집을 완성해냈다. 특히 대들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높이를 맞추고 지붕을 올리는 모든 과정은 누구 한 명이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모두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주)원익큐브 임직원들은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시장 환경이 매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목표의식을 갖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직원들이 힘을 모아 통나무집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며 (주)원익큐브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의미를 두었다.

올해 원익 공채2기로 (주)원익큐브에 입사한 화학3팀 김원경 사원은 “입사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원익의 기업문화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 화학사업부에 동기가 없어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타 사업부와도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즐겁다”면서 “통나무 집을 짓는 동안 힘든 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IT지원팀 서근화 과장은 “본사 분들을 뵈 기회가 많지 않

은데, ‘임직원 단합대회’를 통해 함께 땀 흘리며 집을 짓다 보니 낯설음도 잠깐, 금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원익큐브 임직원 단합대회는 통나무 집 짓기 체험 외에도 바비큐 저녁식사, 잠자리 복불복 게임 등을 진행하며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와 재미를 선사하며 1박2일 동안 진행됐다. 끝으로 지원팀 김종구 과장은 “앞으로도 (주)원익큐브는 임직원 단합대회를 비롯해 각 사업부별 공감대행진, 간담회, 체육대회 등 직원들의 소통과 행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즐거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영화 ‘캡틴 아메리카 : 시빌워’ 관람

직원들과 가족이 함께한 풍성한 문화 행사



(주)원익큐엔씨가 지난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원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Culture Day’(문화의 날)는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주)원익큐엔씨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모처럼 퇴근 후 다같이 모여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볼거리 가득한 SF 액션 영화
어른들도 아이들도 즐거워~

지난 5월4일 오후 롯데시네마 구미공단관에서 개최된 (주)원익큐엔씨 ‘Culture Day’(문화의 날)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행사로 이번에 4 회째를 맞았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직원 복



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매년 2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역시 경영지원본부 권순형 상무, 품질경영본부 최종건 상무, 세정사업본부 유운재 상무 포함 약 270여 명이 참석해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구미 사업장 외에도 판교, 기흥, 강릉 사업장의 경우 지역별로 ‘Culture



Day’ 행사를 별도 진행,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퇴근 후 구미 사업장 직원들은 개인차량 또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영화관으로 이동했으며, 이번 ‘Culture Day’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SF 액션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선정돼 롯데시네마 구미공단관의 2개관을 대관 (총 300석 규모)해 진행됐다.



직원 중 3분의 1정도의 인원이 가족 및 지인을 동반해 참석한 이번 ‘Culture Day’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고자 당일 별도의 식전/식후 행사 없이 진행됐으며, 극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매점에서 자체 주문서를 작성해 간식과 음료를 수령하고 저녁 6시20분부터 선착순 입장, 원하는 자리에 착석해 영화를



관람했다.

(주)원익큐엔씨 세라믹사업본부 기술연구소 김영락 사원은 “같은 사업부 동료와 함께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라는 인기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참석했다. ‘Culture Day’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외에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회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즐거운 영화 관람,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들 위한 선물도

이날 (주)원익큐엔씨 직원 및 가족들이 관람한 영



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는 힘을 합쳐 전 세계를 구했던 어벤저스 멤버들이 팀 캡틴과 팀 아이언맨으로 나뉘어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윈터솔저’, ‘엔트맨’, ‘스파이더맨’ 등 역대 최다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해 거대한 액션과 스케일을 선보



였다.

이에 퀴즈제조본부 생산1팀 김석용 기장은 “개봉하면 보려고 했던 영화인데, 마침 회사에서 ‘문화의 날’ 단체 관람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통쾌한 액션 장면이 많아 어른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히어로들을 한꺼번에 다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 몇 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관람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경영지원본부 구매팀 권용미 대리 역시 “아이들과 어머니를 동반한 영화관람이라 무척 설레인다”면서 “평소 SF 영화를 즐겨보진 않지만 긴 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해 저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Culture Day’ 행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진행된 만큼, (주)원익큐엔씨는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념 선물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여러 종류의 과자와



사탕, 작은 장난감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영화 관람 전부터 한껏 들뜬 모습으로 어린이날의 기쁨을 만끽했다.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관람한 퀴즈영업본부 영업2팀 이종수 과장은 “첫째 아들은 보고 싶었던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볼 수 있어 좋아했고, 둘째 아들은 영화도 보고



어린이날 선물도 받아 더욱 기뻐했다. 아내 역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매우 흐뭇해했다”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관람 행사를 만들어준 회사에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 세라믹사업본부 생산1팀 최원호 대리 역시



“영화관람 행사는 초등학생 아들, 딸이 너무 좋아해 언제 또 하냐고 자주 물어볼 정도”라며 “아



이들이 기다리는 행사이기에 매번 아들, 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팝콘도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원익큐엔씨 임직원들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한 ‘Culture Day’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Culture Day’ 행사와 관련해

(주)원익큐엔씨 측은 “전 직원 공고를 통해 참석 인원을 취합하고, 출장이나 교대근무 등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불참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영화관람권 2매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윤보라 · 사진 이재영



웃고 즐기고 소통하는 사이, 끈끈한 동료애와 행복한 조직문화 ‘쑥쑥’

구성원들 모두가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 살 부딪히며 웃고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은 활기차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있어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다. 특히 팀을 나눠 대결을 펼치는 운동회의 경우 나이, 직급의 벽을 허물고 즐겁게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된다.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테라세미콘의 2016년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4월29일 오후 1시, ‘2016 ㈜테라세미콘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청려수련원에서 개최됐다.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매년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테라세미콘은 1년에 세 차례 전사행사로 운동회, 산행,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해 우리 함께 소통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우리’, ‘함께’, ‘소통’, ‘행복’ 등 총 4개의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팀 별 약 50여명,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운동회 시작에 앞서 직원들은 경품 당첨을 위한 행운권을 접수하고,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몇몇 직원들과 전문 MC, 치어리더들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준비사항을 체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후 ㈜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통해 ‘2016 한마음 명랑운동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재경 대표이사는 “며칠 전까지 미세먼지와 황사가 전국을 뒤덮어 걱정했는데, 오늘은 우리 행사를 하늘이 도와주듯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날씨라 다행이다”라며 “모처럼 야외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테라세미



콘이 올 하반기 바빠질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부서-개인 간의 소통과 이해, 협력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두 함께해야 가능한 경기들, 자연스레 이룬 화합

전문 MC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먼저 직원들의 스트레칭과 몸풀기 체조로 슬슬 시동을 걸었다. 또한 치어리더들의 멋진 공연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

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대부분의 경기는 팀원들 모두가 함



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경기들로, 첫 경기인 ‘구름을 건너라’(각 팀마다 선발된 5명의 인원이 한 명씩 차례로 팀원들 위로 슬라이딩해 끝까지 간 뒤 되돌아오는 게임)와 ‘비전! 풍선탐’(제한시간 내에 팀원들이 풍선을 붙여 큰 비닐에 넣은 후 견고하게 풍선탐을 세우는 게임)은 팀원들의 열정적인 에너지와 단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이어 진행된 임원경기는 ㈜테라세미콘 기술본부





이병일 부사장, 제조기술센터 최상국 상무, 품질보증팀 국정호 상무, 공정개발2팀 고정근 상

무였고, 휴식 시간에는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맥주와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이날 ㈜테라세미콘 공정개발2팀 고정근 상무는 “직원들 모두가 함께 웃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즐거웠다. 무엇보다 ‘자유’, ‘행복’, ‘소통’의 기업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였기에 좋았다”면서 직접 참여한 임원경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물풍선을 던지며 많이 웃고 즐거워하라고 일부러 더 많은 물풍선을 온몸으로 맞았다. 오늘 경기 중 물벼락을 맞은 게 제일 힘

무가 직원들이 던지는 물풍선을 받는 게임으로, 임원진들은 쏟아지는 물풍선 세례에 다소 굴욕적인 모습으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이날 ㈜테라세미콘의 ‘2016 한마음 명랑운동회’에서는 에어봉릴레이, 서바이벌 깃발잡기, 릴레이 짐볼바운딩, 만리장성게임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며 모두가 땀 흘리며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특히 경기 중간 중간 직원들의 다채로운 장기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행사의 재미를 더



들었지만, 제일 재미있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열정적인 경기, 통 ~ 큰 ! 선물로 마무리

이날 ‘한마음 명랑운동회’의 결과는 각 팀이 경기별로 얻은 점수에 팀 대표의 댄스 경연을 통한 보너스 점수가 더해졌다. 우승은 ‘행복’팀, 준우승은 ‘소통’팀이 차지했고, 단합상은 ‘함께’팀, 화합상은 ‘우리’팀에게 돌아갔으며, 100만원~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10명), 스마트 체중계(10명), 다이슨 무선청소기(5명), 갤럭시 탭(5명)이 30명의 직원들에게 행운을 안겼다. 이처럼 열정과 웃음이 가득했던 ‘2016 한마음 명랑운동회’는 각종 선물과 상금, 그리고 바비큐 뷔페까지 ㈜테라세미콘의 ‘통 큰’ 선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갤럭시 탭의 행운을 가져간 ㈜테라세미콘 구매팀 곽용한 대리는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만으로도 좋은데, 좋은 선물까지 받게 돼 너무 기쁘다”며 “전직원이 함께 단합해 한 경기, 한 경기 치른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대표님과 임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테라세미콘 이재경 대표이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맘껏 뛰고 즐거운 경쟁을 하면서 직원들의 열정과 화합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런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Stokke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명품 유모차'로 불리며 일찌감치 직구 열풍을 몰고 왔던 유모차가 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며 직구, 공동구매 열풍을 일으켰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의 유모차이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끌어들이는 스토크의 유모차.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을 장악한 브랜드 '스톡케'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노르웨이 출신 장수기업 '스톡케'

스톡케는 창업주인 게오르그 스토크가 1932년 노르웨이 알레순드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버스 의자와 안락 의자, 사무용 가구 등 가구를 생산하는 회사로 시작한 스토크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당시에 편안한 가구를 목표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시도했다. 1972년에는 아이를 위한 제품으로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피터 옴스빅이 디자인한 '트립 트랩'을 선보였는데, 그 이후 스토크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컨셉의 유아 제품으로 컬렉션을 확대했다.

'트립 트랩'은 피터 옴스빅이 아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제품이다. 아들이 식탁에 팔이 닿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것. 그 결과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1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트립 트랩을 개발했고, 이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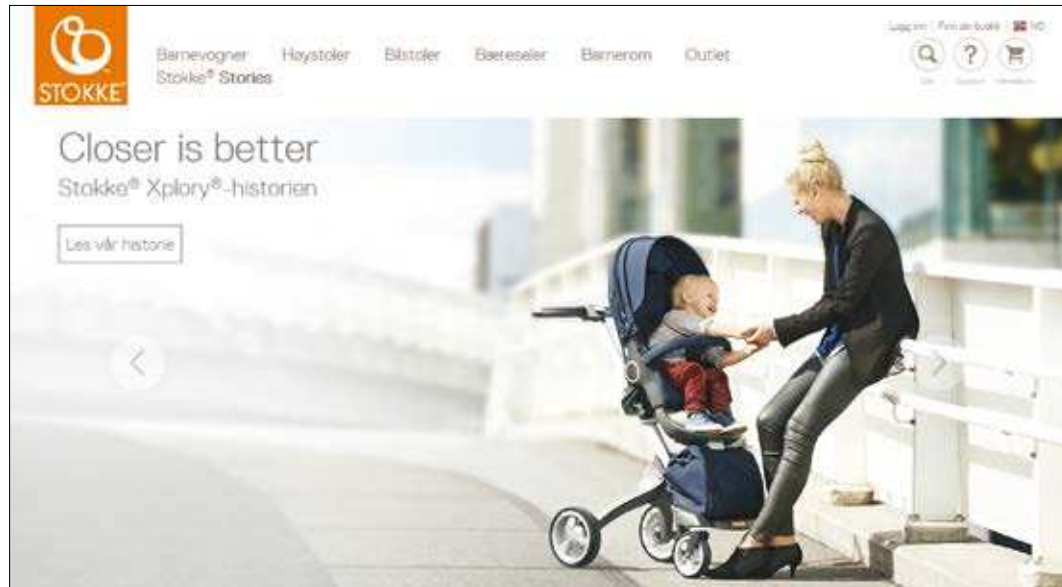


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유아용 가구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트립 트랩은 전세계적으로 900만대 이상 팔려 나가며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스토크는 프리미엄 어린이 가구 및 유아용품 전문 업체로 변신, 전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스토크는 "어린이용 가구는 아이가 성장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깨고, 트립 트랩과 같이 아이가 성장해도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1999년에 출시한 유아용 침





대 역시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쓸 수 있게 제작했다. 침대로 쓴 이후에는 소파로 변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또한 기저귀 교환대는 선반이나 책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오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

스토케는 트립 트랩 출시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스토케의 모든 제품은



아이의 성장 발달 속진은 물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교감을 강화하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특히 2003년 출시해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명품 유모차’로 불린 스토케 익스플로리는 시트를 높이고 아기와 부모가 마주볼 수 있도록 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 유모차는 단순히 트립 트랩에 바퀴를 달아보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이후 스토케는 연구를 통해 아이가 낮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보다 부모와 마주보며 눈을 마주칠 때 가장 안정감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업계 최초로 높은 시트의 양대면 유모차를 내놔고, 이 유모차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처럼 스토케의 제품들은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할 때 가장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는 점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지속적으로 아이 컨택(eye



contact)하며, 상호 교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인테리어 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클래식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고 있다.

스토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



스토케는 2006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2년 스토케 코리아를 설립할 당시 한국 매출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물론 해외 시장에 비해 2배 가까운 가격을 책정해 논란이 되기

도 했으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 유모차 브랜드 중에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다.

이후 8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스토케 가문이 운영하며 장인정신을 계승해온 스토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지난 2014년 국내 게임업체 1위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투자전문 자회사인 NXMH BVBA의 벨기에 지부가 스토케를 인수한 것. 이후로도 스토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을 선도하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케의 성공은 아주 단순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아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인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제작, ‘아이를 최우선’으로 제품을 디자인 한 것. ‘부모와 아이와의 교감’을 위해 노력하는 스토케가 앞으로 또 어떤 신제품으로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름 축제]

장마가 지나가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각기 그만의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여름은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 중 하나다. 덥다고 무작정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고만 있기에는 야외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찌는 듯한 더위를 식힐 시원한 물놀이 외에도 올해는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재미를 느껴보자.



여름속으로 GO ~ GO ~

보령머드축제 2016

07 15 _ 07 24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보령머드축제’는 7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보령머드축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나라 대표 여름축제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올해는 기존 머드광장에서 운영하던 행사장을 진입도로까지 축제공간으로 확장하고, 분수광장에서 운영했던 키즈존을 머드광장으로 통합 운영해 행

사를 일원화 한다. 시민탐광장에는 뷰티박람회, 분수광장에서는 분수쇼와 머드셀프 마사지 등이 운영되며, 특히 올해는 개막식 이전 행사를 생략, ‘싸이’의 스탠딩 콘서트로 결합해 진행한다.

2016 옐로우 리버비치

07 01 _ 08 21

신개념 워터파크 ‘옐로우 리버비치’가 7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경남 합천군 대양면 황강레포츠 공원에서 열린다. 올



해로 2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차원이 다른 이색적인 수상레포츠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각종 슬라이드 시설을 포함해 인공파도 위에서 보드를 탈 수 있는 ‘보드 슬라이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플라잉 슬라이드’, 짜릿한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 60m 길이의 초대형 자이언트 슬라이드 등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블롭점프’, ‘롤링워터볼’, ‘로프스윙’, ‘버블팡’, ‘저브볼’ 등 20여 개의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키즈편존도 마련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강이불영화제 2016

08 12 _ 08 14

‘2016 한강이불영화제’는 잔디밭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행사다. 오는 8월12일부터 14일까지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한강이불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6 한강이불영화제’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뒤 돗자리와 이불을 가져가면 된다. 이불을 가져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영화를 보는 것 외에



도 파자마 파티, 시원한 수제맥주와 팝콘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티켓과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

07 27 _ 07 31

대구시와 (사)대구치맥산업협회는 2016대구치맥페스티벌을 7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다양한 공연과 파티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가 제공돼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두류 야구장은 2030세대를 위한 프리미엄존으로 구성해 KPOP 초청공연과 EDM 공연이 진행되며, 2-28 주차장



은 파라솔로 꾸며진 맥주존에서 짜즈와 팝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야외음악당은 돗자리로 가득 채운 가족존으로 꾸며 관악축제와 포크송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두류 수영장에서는 ‘쿨썸머 풀파티’가 진행된다.

청개구리 물놀이축제 2016

06 24 _ 08 15



경기도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리는 ‘청개구리 물놀이축제’는 어른과 아이들, 가족 모두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풀장이 마련되어 있

고,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전용 풀장도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신나는 여름을 선사한다. 풀장 외에도 초대형 슬라이드가 구비된 에어바운스는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로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민속촌 시골 외갓집의 여름

06 18 _ 08 28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은 ‘시골 외갓집의 여름’ 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는 매년 선보였던 시골 속 여름나기 체험에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더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수박서리체험’은 수박을 지키려는 마을이장 캐릭터와 수박을 서리하려는 관람객들의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재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별공연 ‘민속 노래자랑’, 캐릭터와 함께하는 민속마을 달인 선발대회, 새참배달레이스, 미꾸라지 잡기왕 선발대회 등도 진행된다. 또한 잠자리채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밀짚모자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시골 외갓집에 놀러간 듯한 체험 활동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Economy

[여름 휴가, 똑똑한 소비]

여름 휴가, 현명하게 소비하자 !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통 짧게는 4~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 여름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설렘만큼이나 커져 가는 것이 바로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다. 모처럼 떠나는 여행의 마무리가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현명한 소비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날 경우, 국내 여행보다 지출이 커지는 만큼 알뜰하게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여행

● 길에서 쓰는 비용을 줄이자

제주도나 부산처럼 항공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이용해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필수. 그 외의 국내 여행지는 보통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장거리 여행의 경우

▶ 해외여행

●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려면

해외여행 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항공요금이다. 직항편보다 1~2회 경유하는 항공편이 저렴한 데, 경유하는 번거로움이 싫다면 여행을 가기 전에 시간을 할애해보자. 땡처리 항공권 검색하기, 항공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격 비교 앱 활용하기, 소셜커머스의 항공-숙박 패키지 요금 등을 검색하는 부지런함은 필수다. 특히 출발과 도착일을 눈 여겨 봐야 하는데, 보통 일, 월, 화요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저

휴게소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쓰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휴게소 간식거리와 휴가지에서의 길거리 간식 지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 숙박요금 줄이기

여행 중 가장 많은 지출 중 하나가 숙박요금이다. 국내 호텔 및 리조트, 펜션 등은 여름 휴가철에 가격이 제일 높다. 편안한 잠자리는 지친 여행의 피로를

덜하고, 주말에 도착하는 항공권은 가격이 비싸다. 이외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PC 인터넷 사용기록 지우기다.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 항공권을 검색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록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다르게 보여진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항공권 정보를 검색한 후 반드시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시크릿 모드로 접속해 검색해야 한다.

● 호텔, 리조트 선택하기

최근에는 각종 호텔 비교사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과 위치, 여행자들의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풀어주는 만큼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가령 바다가 보이는 멋진 뷰와 실내 인테리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름 휴가의 경우 야외에서 즐기는 활동이 많은 만큼, 비용 대비 만족을 얻으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성수기 숙박요금은 웬만한 해외여행의 항공+숙박 요금만큼이나 비싸다.

● 블로그에 현혹되지 말자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내 여행지를 검

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맛집 정보다. 블로그에 많이 검색되는 맛집은 그 인기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기도 하고, 음식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실제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인터넷 뉴스에 등장하는 맛집이나 펜션 등은 광고기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믿고 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게 좋다.

계부 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환율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볼 수 있고, 지출 비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화로 환산해 보여준다. 또한 전체 일정의 소비계획을 입력하면, 날짜별 지출 금액을 입력-확인해 보다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환전, 환율 따져보기

해외여행 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환전부터 야무지게 준비해보자.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여행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면 우대 이벤트를 하는 은행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용 가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 !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물고간 가슴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침에 일어나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을 접한다. 치약, 비누, 샴푸를 시작으로 화장품, 먹거리, 주방식기, 세제, 각종 생활용품도 모두 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는 ‘천연’, ‘친환경’을 강조한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조사의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야기한 옥시 레킷벤키저도 ‘건강’, ‘위생’, ‘가정’이라는 3대 가치를 내건 세계적인 기업이었고, 가슴기 살균제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화학물질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보다 신중하게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 중 절대 쓰지 말아야 할 화학물질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실생활에서 화학물질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피해야 할 화학물질은 무엇 ?

비스페놀A 통조림 캔의 안쪽 면에 바르는 코팅제의 원료로, 플라스틱과 레진 등에도 함유되어 사용되는 화학물질. 캔음료, 통조림, 즉석요리 식품의 용기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고온에서 비스페놀A가 나올 확률이 높는데 여성에게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자궁 내막증을 유발하고, 남성에는 남성호르몬 및 정자 수 감소를 불러온다.

아질산나트륨 햄과 소시지, 명란젓 등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하면 혈관 확장, 헤모글로빈 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PGH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호흡을 통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적은 양으로도 호흡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메틸이소티아졸린온(MIT),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와 함께 더불어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다.

파라벤류 샴푸와 린스, 세안제, 화

장품 등에 쓰이는 방부제로,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형광증백제 세제, 기저귀, 옷, 화장지 등에 쓰이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암 우려가 있다.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의 주성분으로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성장과 생식, 면역을 방해한다. 이조 가족이나 장판, 매트, 자동차 내구재, 전자제품, 완구, 실내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합성 계면활성제 식품, 화장품, 약, 세제, 샴푸, 치약 등 수많은 생활용품에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다.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생활 속
화학물질 피하기 !**

플라스틱 제품에 뜨거운 음식은 No!
환경호르몬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PVC 재질의 플라스틱에는 프탈레이트가 들어있고, 비스페놀A가 용출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종류에 뜨거운 음식을 담는 것을 피하자. 또 따뜻하게 데워진 캔음료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물티슈로 눈과 입을 닦지 말 것
물티슈에는 살균제(보존제)가 반드시 들어가며, 이 살균제는 인체로 들어가게 해선 안 되는 물질이다. 특히 눈과 입을 닦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가장 좋은 건 티슈에 생수를 부어서 쓰는 방법



[화학물질 주의보]

‘유기농’, ‘천연’ 화장품 따져보기

제조사들은 ‘유기농’과 ‘천연’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니다. ‘천연’을 가 장한 ‘천연화장품’이 많기 때문. 위험성 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없는지 꼭 확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모바일 앱 활용하기

인체에 유해한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을 외우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해 제품을 구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친절한 모바일 앱들이 있다. ▲ 화해: 손쉽게 화장품 성분을 찾고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 분석 서비스. 화장품은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어 보기 편하고, 검색창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특히 안전도 체크, 기능성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EWG(미국의 환경 연구단체) 등급 확인도 가능하다. ▲ 식품첨가물 스마트인포: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모든 식품첨가물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품 구매시 포장재에 표시된 식품첨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생활속 작은 지혜가 나와 나의 가족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독성물질 잡는 해독엄마' 베이비뉴스 편집국]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원익인 모두의
수많은 이야기는
또다른 설렘으로
가을호에 계속됩니다

(주)원익큐엔씨 이민희

(주)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원익사보 2016년 여름호 원익인 통권 47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6년 7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10.4742.2088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타는 듯한 뜨거운 자외선을 견디는 풍부한 수분 피부

스위스킨 워터 홀딩 선스크린

WATER HOLDING SUNSCREEN

국내 최대 자외선 차단지수



완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의 기준

DOUBLE LAYER UV PROTECT

날카롭게 피부로 파고드는 자외선을 막아 줄
무기자차/유기자차의 이중 차단효과